전법 일기

봄날에 그리는 친구 모든 인연이 정겹다

〈상윳다니까야〉 절반경은 널리 인용되는 친구에 대한 짧은 경전이다. 아마도 경전이 설해진 날은 지금처럼 봄꽃이 완연하게 흐드러진 멋진 날이 아니었을까. 아난 스님이 즐겁고 활기찬 목소리로 부처님께 말씀드렸을 것이다.

"스승님! 좋은 친구만 사귀어도 깨달음의 절반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우리 아난 스님! 내 생각에는 좋은 친구만 사귀어도 깨달음의 절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스승님 곁에 저 같은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봄날에 꽃구경도 모셔다드리고 커피도 사다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수행도 이런 좋은 친구가 있을 때 더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네가 절반의 깨달음을 줬으니 나머지 절반은 가섭이나 사리불한테 가서 얻어야겠구만. 자네 말이 맞지. 자네 덕분에 꽃구경도 잘하고 호강하고 있어. 그런데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너와 나 둘 사이만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야. 좋은 친구의 친구 역시 또 좋은 친구가 되어 나의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주고, 나를 어려움에서 구해주며,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겠지. 제자여! 결국 좋은 친구를 사귀는 일은 결국 좋은 대중(大衆)을 이루는 것이고, 좋은 대중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근본이다 이 말일세."

"스승님!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깨달음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아마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경전엔 근엄한 대화로 남아있지만, 속에 담긴 마음은 저렇게 정겨웠을 것 같다.

절반경을 접할 때마다 고마운 얼굴이 떠오른다. 나는 마흔이 넘는 나이까지 운전면허를 따지 않았다. 운전을 싫어하거나, 신체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 '차 없는 스님'으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궁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외부법회나 법문이 있을 때면 늘 불평하지 않고 차를 태워주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그 덕분에 나는 자동차를 가지는 수고로움과 길을 찾는 번거로움에서 늘 조금씩 비껴나 있을 수 있었다.

내게 없는 운전면허와 차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기꺼이 나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나의 불편을 해결해주었으므로, 마땅히 나는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하고, 좌복 위에 앉아 하루 열 시간씩 참선을 한다. 모두가 저마다의 능력과 방식으로 함께 수행을 완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출가 이후 만난 모든 인연도 내게는 소중한 친구들이다. 어린이 법회의 아이들과 자모님들, 범어사불교대학 학생과 대불련의 맑은 청년들, 정답던 포교사님들과 노보살님들 한분 한분이 나와 함께 부처님 법을 닦아가는 청정대중이었음을 또 한 번 생각해본다.

파르라니 깎은 머리로 법당 한가운데 서서 차가운 입김으로 촛불을 사른 겨울이 지나가고, 오늘은 법당문을 나서면 바람결에 꽃잎이 춤춘다.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봄날이므로, 지는 꽃마저도 아름답구나.



범어사 전 포교국장 눌은 스님



송마나의 **시절인연**

피어있는 꽃, 마음 속에 심어라

화들짝 놀란 벚꽃이 와르르 깨어나 4월의 빛을 거리에 흩뿌린다. 오종종한 개나리꽃이 반짝반짝 노란별이 되어 담장 밑을 밝힌다. 중량감을 어찌할 수 없는 목련꽃은 주먹만한 하얀 등불을 처마 위 높이 걸어둔다. 젊은이들은 무거운 코트를 벗어던지고 밝고 경쾌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한다. 봄, 봄, 봄이 넘쳐흐르고 있다.

'사시장춘(四時長春)'이라는 말이 그냥 생겨났을 리 없다. 봄같이 좋은 때가 어디 있으랴. 겨울을 뚫고 꽃들이 활짝 피어난 자연의 봄, 싱싱한 젊음이 들끓는 인생의 봄, 이보다 좋은 봄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연의 봄과 인생의 봄 외에 또 하나의 봄을 덧붙이고 싶다. 바로 정신의 봄이다.

봄(見)을 가져야만 참다운 봄을 가진 것 아닐까?

당나라 때, 〈금강경〉 박사라고 자부했던 덕산(德山)이 점심을 먹으러 길가 떡집으로 들어갔다. 떡 파는 할머니가 "당신은 점심(點心)을 먹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과거, 현재, 미래의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하는 것이요?"라고 물었다. 덕산은 그 질문에 답변을 못하고 부끄러워 유명하다는 용담(龍潭)에 살고 있는 숭신(崇信) 스님을 찾아갔다.

그런데 찾아간 그곳에는 개울물이 졸졸 흐르고, 어떤 남루한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용담, 용담하고 사람들이 떠들어 굉장한 곳인 줄 알고 찾아와 보니 큰 계곡도 아니고 용이 있는 것도 아니로구나"라고 덕산은 중얼거렸다.



그림 · 최주현

그러자 노인이 일어서서 말했다. "네가 찾아온 이곳이 용담이요, 네 앞에 있는 내가 용이로다."

덕산은 또 한 번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했다. 천하가 담이요, 모든 만물이 용인데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일념으로 숭신 스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던 어느 날, 덕산은 밤늦도록 스님의 강의를 들은 후 자기 암자로 가려고 밖으로 나왔다. 너무 깜깜해서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스승께 촛불 하나 켜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줬다. 촛불을 들고 길을 찾아가려는데 스님이 훅, 촛불을 꺼버렸다. 덕산은 당황했지만 어찌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세상이 차차 밝아졌다. 멀리 별빛이 보이고, 산등성이가 보이고, 시냇물이 보이고, 길이 보였다. 덕산이 견성(見性)해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촛불은 끌 수 있지만 진리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산수유, 개나리, 벚꽃이 시들지 않고 영원히 피어있겠는가. 아름다운 청춘이 늙지 않고 영원하겠는가. 꽃 피는 봄, 인생의 봄은 촛불을 불면 꺼지듯 이내 사라지고 만다. 그렇다면 어떻게 봄을 영원히 붙들어 둘 수 있을까. 그것은 밖에 피어있는 꽃을 마음속으로 옮겨 심는 것이다. 밖에 있는 꽃이 시들어도 마음 안에 있는 꽃은 시들지 않기 때문이다.

흘러가는 청춘을 마음 안에 옮겨 두면 세월이 지나도 마음속의 청춘은 사라지지 않는다. 즉 내가 나를 보는 것이다. 눈은 볼 수 없는 것을 보아야 한다. 부처님은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신다. 나뭇가지에 눈이 트이듯, 마음의 눈이 트이면 영원한 봄을 볼(見) 수 있다. 봄이 봄을 만나는 법열이다. 이것이 참 봄(見性)이요, 진리(眞理)의 봄이다. 〈작가〉

기자칼럼

제주4·3에 돌아본 여순10·19

지난 4월 3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한 제주4·3사건 희생자추모재가 봉행됐다. 3만여 명에 달하는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그들을 보호하다 화를 입은 제주불교계의 명예회복을 발원하는 추모재 현장에서 문득 기자의 고향에서 발생한 여수·순천10·19사건이 떠올랐다.

1948년 발생한 여수·순천10·19사건은 당시 여수에 주둔하던 일부 군부대가 4·3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1만여 명의 시민이 희생된 비극이다. 전개과정도 제주4·3과 유사하다. 그날 여수와 순천에서도 제주와 마찬가지로 불교계의 피해가 크지 않았을까.

2005년 조계종이 발간한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Ⅲ〉에서는 6·25전쟁 전후로 전남에서 총 43곳의 사찰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전쟁 전에 피해를 입은 사찰은 대부분 10·19사건으로 전소 및 훼손됐다고 파악하고 있다. 광양 상백운암과 보성 대원사, 하동 칠불사, 함양 영원사 등 지리산에 인접한 사찰들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자료를 더 찾아봤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못내 아쉬울 뿐이었다.

반면 4·3사건 당시 불교계 피해를 다룬 자료는 많았다. 제주불교계가 세미나를 수차례 열고 4·3사건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구체적인 피해 사례, 스님들의 희생과정, 피해를 입은 시기 등을 조사해 자료로 축적해온 덕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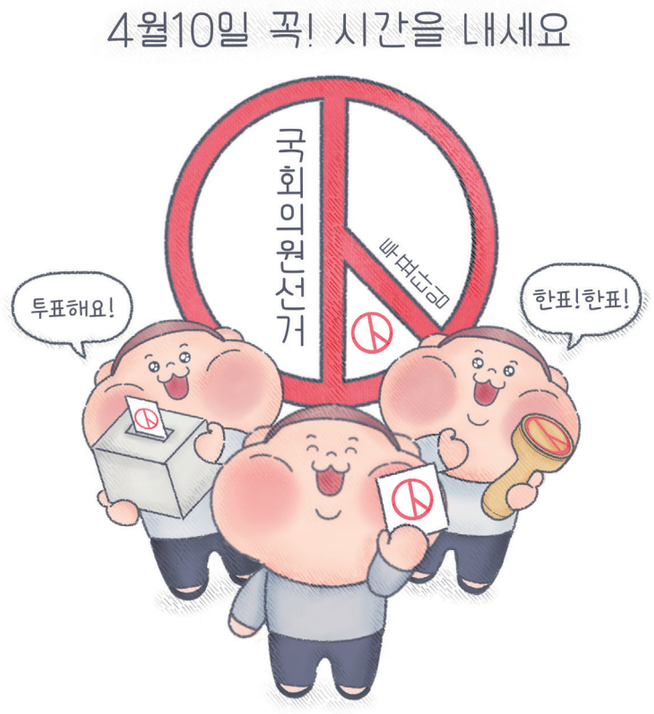
호남불교계도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재와 특별법 제정을 지지하는 활동을 펼치긴 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학술적 움직임은 찾기 어려웠다.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10·19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호남불교계의 명예회복 담론은 형성되기 어렵다. 이대로라면 10·19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불교계의 아픔이 잊힐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호남불교의 명예회복을 위해 10·19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찰과 스님들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호남불교도 제주불교처럼 스스로의 명예회복을 위해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이민우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전재산 다 팔았지만
아들 혈액암치료비 막막

몽골 아나르군, 림프종혈액암에 장기치료 불가피
미납된 병원비만 6천만원…후원받기도 어려워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